

마을정원 관람하며 이웃과 정 나누세요

순천 '오픈가든 페스티벌'
매곡동 10월초·도사동 11월초
개인정원 투어·토크콘서트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순천 마을정원축제인 '2018 오픈가든 페스티벌'이 오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매곡동 탐매마을과 도사동 선평·선월마을에서 각각 열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 <순천시 제공>

"마을정원 관람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정(情)을 담아 가세요."

아름다운 개인정원을 개방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정원을 관람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원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마을정원축제 '2018 오픈가든 페스티벌'이 매곡동 탐매마을(10월 3일~4일)과 도사동 선평·선월마을(11월 3일~4일)에서 개최된다.

올해 3화재를 맞은 2018 오픈가든 페스티벌에서 매곡동 탐매마을은 ▲개인정원 투어 ▲정원 토크콘서트 ▲반려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사동 선평·선월마을은 ▲개인정원 투어 ▲화분정원 페스티벌 ▲정원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주도형 마을 정원 축제'라는 행사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마을 주민들은 모든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위해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분담해 행사 전반을 주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픈가든 페스티벌은 정성스레 가꾸어 온 개인의 정원을 매개로

관람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정원 문화 축제"라며 "시는 정원 디자인 및 화훼연출 교육과 정원 관광 선진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원문화 조성 역량 함양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061-749-2752) 또는 매곡동행정복지센터(061-749-8338), 도사동행정복지센터(061-749-8360)로 문의하면 된다.

또 해설사와 함께하는 개인정원 정기 투어의 경우 매곡동행정복지센터와 도사동 행정복지센터로 예약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확대한다. 야간 혼잡지역인 순천수산시장 인근 도로. <순천시 제공>

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주목'

4시간 연장·운영지역 10곳으로

순천시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나서 성과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단속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4시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주말(공휴일) 단속카메라 운영 지역도 현재 운영 중인(터미널 등) 5개소에서 교통 혼잡지역(순천역 등) 10개소로 확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민원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상권 활성화 및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 오전지구 28개소에 주민자를 주차장 512면, 연향1지구 2개소에 포켓주차장 44면, 충효로 사선주차장 188면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도 지

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순천시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속원 19명과 차량 6대로는 시 전 지역을 단속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순천경찰서와 협의하고 타 시·군 단속 사례(여수 07:00~22:00, 목포 08:00~20:00, 군산 07:00~20:00, 광주 시(남·북구 등) 07:00~22:00)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일부 상권과 시민들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으로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주차장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시, 시정 참여 청년에 다양한 인센티브

'청년활동 포인트제' 시행

11월까지 참여자 상시모집

순천시는 청년의 시정참여 활동 확산을 위해 '청년활동 포인트제' 참여자를 상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활동 포인트제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 간담회, 공공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후 순천시청 청년센터 블로그에 적립 신청글을 게시하면 매달 말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동일한 금액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타 지역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활동 포인트제 참여는 올해 11월 말까지 상시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적립 방법은 네이버 '순천시청년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포인트제의 시행으로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와 이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문화의 거리 일원서 오늘 '에너지 페스티벌'

물총축제·퍼포먼스 등 다양

순천시는 22일 오후 4시~8시까지 제1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에너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1일 기준 최대 전력 수요 신기록을 갱신한 2003년 8월 22일을 기억하며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에너지 절약과 실천으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2004년에 시민단체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불을 끄고 별을 쬐다 - 나누자! 평화의 에너지'를 주제로 '에너지 자립도시 순천'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절약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열린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에너지 페스티벌에서는 오후 4시부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학생 제로에너지 경진대회, 에너지 발산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물총축제, 태양열을 이용한 어포깁기,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평화의 에너지 나누기 퍼포먼스와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에너지의 날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에서 '소등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날 만큼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날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한 순천시에 걸맞게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시민주도형 에너지 절약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